

總體化된 自我와 ‘나-님’의 세계

—萬海의 詩的 自我—

金 堧 五*

I.

만해시는 시가 담화의 한 형식이라는 명제를 가장 철저하게 구현하고 있다. 시가 담화의 한 형식이라면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시의 기본골격이 된다. 시에서 화자는 일인칭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고 작품의 이면에 함축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청자도 화자에 의하여 이인칭으로 발화되기도 하고, 이면에 숨어 있기도 한다. 만해시의 경우 청자의 역할을 하는 ‘님’(당신)은 과거에만 존재했고 현재는 부재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해시에서 대부분 화자는 ‘나’로, 청자는 ‘님’(당신)으로 발화되고 있다. 만해시는 ‘나-님’의 관계로 성립되는 전형적인 담화다. 이것은 우리의 고전시가에서, 특히 20년대시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된 형식이기도 하다.

만해시에서 화자와 청자는 또한 기본적으로 ‘사랑’으로써 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화자인 나는 청자인 님을 사랑하고 님도 나를 사랑한다. 화자가 여성으로 분장하고 있는 점도 전통적이다. 만해의 님은 공통적으로 화자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이것은 만해시가 사랑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님의 沈默』의 서문인 <군말>에서 만해 자신이 밝힌 것처럼 님의 의미는 다양하다.¹⁾ 님의 의미가 다양하므로 ‘나-님’의 관계도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군말>에서 만해는 “『님』 만님이 아니라 그문것은 다님이다. 衆生이 釋迦의 님이라면 哲學은 칸트의 님이다. 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伊太利다. 님은 내가 사랑할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라”고 했다. 님의 이런 모호성을 金載弘교수는 ‘現實態’로서의 님과 ‘可能態’로서의 님과 ‘理念態’로서의 님으로(『韓龍雲文學研究』一志社, 1984, pp. 89~90), 申尙澈교수도 ‘현실의 님’, ‘이념의 님’, ‘指向의 님’의 셋으로 유형화했다(『現代詩와 ‘님’의 研究』詩文學社, 1983, p. 100).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만해시의 화자는 전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나-님'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존재의미를 가지면서 현대시사에서 특이한 시적 자아상들을 보여 준다.

II.

인간은 본질적으로 화자인 동시에 청자다.²⁾ 시인은 자기자신에게 의의 있는 대상을 청자로, 자신을 화자로 삼는 상상세계를 구축한다. 청자가 된 대상은 화자에게 체험의 소재가 되는 삼인칭이 아니라 화자와 체험을 공유하고 체험을 함께 형성하는 이인칭이 된다.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며 서로가 주체이면서 객체가 되는 역할의 상호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실증론적 사유는 '나-그것'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시적 사유는 '나-너'의 관계를 강조한다.³⁾ 시인이 의의 있는 대상을 청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너'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만해시에서 화자인 '나'와 청자인 '님(당신)'은 '나-님'의 '나'이고 '나-님'의 '님'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님'은 각기 고립되어 존재하거나 형성되지 않는다. 화자인 나는 '님'으로 인하며 '나'가 되고 동시에 '나'가 되면서 화자는 청자를 '님'이라고 부른다. '나'라고 말하면 '님'도 함께 말해지고 반대로 '님'이라고 말하면 '나'도 함께 말해진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만해의 禪的 발상에 기인한다. 그는 「나와 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나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도 없고 다른 것도 없으면 나와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없다.

나는 다른 것의 모임이요, 다른 것은 나의 흠어짐이다. 나와 다른 것을 아는 것

2) Philip Ellis Wheelwright, *Metaphor and Reality* (金泰玉역, 文學과 知性社, 1982), p. 125.

3) Martin Buber, *Ich und Du*(表在明역, 文藝出版社, 1978), pp. 5~6 참조. 여기서 부머는 '나-그것'과 '나-너'를 '근원어'의 두 가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휠라이트는 이것을 시적 사유에 적용시키고 있다. Wheelwright, *The Burning Founta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59), p. 80.

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갈뚝 위의 달빛이요, 달 아래의 갈뚝이다.⁴⁾

원래 자아란 세계를 두고 존립되며 세계도 자아를 두고 존립한다. 자아가 없는데 세계란 있을 수 없고 세계가 없는데 자아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화자는 청자 때문에 존재하고 청자도 화자 때문에 존재한다. 만해의 경우 이것은 “나는 다른 것의 모임이요, 다른 것은 나의 흠어짐”이기 때문에 자명한 진리가 된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와 ‘다른 것’이란 객체는 결코 서로 무관하게 독립된 존재로 고립될 수가 없다. 반드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나’는 만해시의 화자인 ‘나’로 ‘다른 것’은 청자인 ‘님’으로 연결된다. 만해시의 ‘나’는 ‘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님’은 또 ‘나’에 의해서 존재한다. 자아와 세계, 화자와 청자, 나와 님은 짝말이다. 따라서 만약 “「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없으며 “다른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처럼 만해의 시세계에는 ‘나-님’의 ‘나’가 있고, ‘나-님’의 ‘너’가 있다.

아아 나는 님의 그림자여요 (「님의 얼굴」)

나는 나룻배

당신은 行人 (「나룻배와 行人」)

님이 있기 때문에 님의 그림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님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님의 그림자”다. 그리고 “나룻배”는 “行人”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내가 나룻배이면 님은 행인이 된다.

‘나-님’은 ‘관계’의 세계를 세운다. 관계는 혼의 주형이다.⁵⁾ 만해시에서 혼의 주형은 사랑이다. 사랑은 나와 님 사이에 있어 나와 님의 관계를 맺게 하고 나와 님의 모두에게 존재의 범주가 된다.

원세상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새에 당신만이 나를 사랑하얏습니다 / 나는 당신을 사랑하야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야요 (「<사랑>을 사랑하야요」)

4) 「佛敎」誌 88號, 1931. 10. 여기서 「韓龍雲全集」2권 (新丘文化社, 1973), p. 351에서 인용함.

5) 부버의 상계서, p. 40 참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당신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님’의 나는 결코 무엇을 소유하지 않는다(이것이 다음에 상론하겠지만 이별을 강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만약 소유한다면 ‘나-님’의 ‘님’은 ‘나-그것’의 ‘그것’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이인칭이 아니라 삼인칭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은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나와 님의 관계이며 존재의미이며 존재의 범주다.

‘나-님’은 만해의 시적 사유에 있어서 하나의 숙명으로까지 극단화된다.

이세상에는 길도 만키도합니다……/그러나 나의길은 이세상에 들맞게입니다
다/하나는 님의품에안기는 길입니다/그러치 아니하면 죽임의품에안기는 길입니다
다/그것은 만일 님의품에안기지못하면 다른길은 죽임의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차
람입니다/아아 나의길은 누가내엿슴닛가/아아 이세상에는 님이아니고는 나의길
을 내일수가 업습니다/그러네 나의길을 님이내엿으면 죽임의길은 왜내섯슬가요
(「나의 길」)

이 화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님의품에안기는” 길과 “죽임의 길”이 그것이다. 그러나 화자에게 이 두 가지 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님의 품에 안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운명은 다름 사람 아닌 님이 지어준 것이다. 화자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나-님’의 ‘님’은 ‘타고난 님’이며 ‘나-님’의 ‘나’도 타고난 ‘나’다. ‘나-님’의 관계는 타고난 관계이며 운명의 관계다.

만해시의 화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화자에 상대가 되는 님은 언제나 부재하지만 그는 청자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님’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혼의 형식이고 그것은 타고난 관계라는 것이 만해시의 기본 공식이다. 그러나 청자인 님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님’의 관계인 사랑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님’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미를 갖게 되는 화자도 여러 가지 시적 자아로 표상된다.

共時的・通時的 同一性

만해시의 화자는 우선 공시적 동일성과 통시적 동일성의 양상을 띤다.

‘나-님’의 관계는 나와 님과의 일체감으로 그 절정을 이룬다. 이것이 공시적 동일성이다.

당신의얼굴이 달이기에 나의얼굴도 달이되었습니다／나의얼굴은 금음달이된걸을 당신이아싯닛까／아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얼굴도 달이되었습니다 (『달을 보며』)

달은 만해시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중요한 소재다. 여기서의 달은 나와 님 사이에서 하나의 매거역할을 하고 있다. 화자의 상상력 속에서 달은 님의 얼굴이 되고 그래서 화자의 얼굴도 달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일체화는 「잠 없는 꿈」에서처럼 어디까지나 상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움의 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자는 이제 만월이 아니라 “금음달”이기 때문이다. 님의 부재가 화자를 “금음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달은 화자에게 님과의 일체감을 재확인시켜 주면서도 한편으로 화자가 애타게 갈구하는 님이 부재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하나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아니더면」 등에도 화자는 님과의 일체성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다. 이런 공시적 동일성을 갈망하고 있는 화자는 또한 통시적 동일성도 보여 준다. 이것은 가장 단적으로 님에 대한 사랑의 불변성이다. 님과의 일체성을 갈망하는 화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당신이크롭지만 안터면 언제까지라도 나는 늙지아니칼테여요／랜춤에 당신에게 안기는 그대로 잇슴데여요／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라도 당신때문이라면 나는 실치안하여요 (『당신이아니더면』)

나는 당신의첫사랑의팔에 안길새에 온갖거짓의옷을 다벗고 세상에 나온그리로의 발계버튼음을 당신의안배 노았습시다 지금까지도 당신의안배는 그새에노야들뭉을 그대로밧들고 잇습니다 (『의심하지마세요』)

素月詩의 화자처럼 여기서의 화자도 오직 하나의 옛 님을 그리워하고, 사랑으로써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해 간다. 「의심하지마세요」에서는 여기에다 순결성까지 덧붙이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변하지 않는 자기 인격을 호소함으로써 화자는 님에 대한 사랑을 심화시키고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만해시의 화자가 지키고 있는 인격의 통시적 동질성은 결코 소월시의 화자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소월시의 화자에게 있어서 인격형성은 소극적이다. 그는 새로운 님을 찾는다는가 과거의 님을 미래에 다시 만난다는(오히려 체념한다) 기대도 없이 오직 하나의 옛 님에 얽매어 있다. 그는 변화를 싫어하고 단순히 같은 것의 지속 반복만을 선택한다.⁶⁾ 말하자면 소월시 화자의 인격형성은 새로움이나 갈등의 드라마가 없다. 그의 체험은 단순하다. 그러나 만해시의 경우 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별을 포괄하고 삶은 죽음을 포괄한다. 만해의 시적 자아는 사랑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별의 고통을 선택하며 삶을 위해 죽음도 수용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밝힌 것처럼 만해의 禪思想上에 근거한다. 여기서 만해시 특유의 ‘운명의 전환’이 가능하고 시의 화자는 전체적 인격, 곧 ‘총체화된’ 자아상을 보인다.

禪과 自我의 總體化

만해는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미지들은 때론 奇想에 가까운 참신성을 띠고 있기도 한다. 동시에 만해시는 잠언적 요소도 많이 지니고 있다. 잠언은 사상을 중요시하는 주제적 양식의 하나다. 만해는 이 잠언형식을 많이 선택해서 사랑과 삶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한다.

生命보다사랑하는 愛人을 사랑하기위하야는 죽을수가없는것이다/진정한사랑을 위하야는 괴롭게사는것이 죽엄보다도 더큰 犧牲이다/이별은 사랑을위하야 죽지 못하는 가장큰 苦痛이오 報恩이다 (「리별」)

만해시의 님은 언제나 부재한다. 님의 부재는 님과의 이별이다. 이별은 님을 사랑하고 있는 화자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 화자에게는 이별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화자는 역설적으로 죽음보다는 오히려 이별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님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을 종식시키지만 동시에 사

6) 金俊五, 「詩論」(文章社, 1982), pp. 47~48.

량도 증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님을 사랑하는 화자에게 이별은 '가장 큰 苦痛'이면서 동시에 님에 대한 "犧牲"이며 "報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별은 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심화시키고 증폭하는 모티브가 된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사람사이에 잇는 것입니다 / 사랑의 量을 알아던 당신과 나의 距離를 測量할수있게 업습니다 / 그래서 당신과 나의 距離가 멀면 사랑의 量이 단하고 距離가 가까우면 사랑의 量이 적을것입니다 (「사랑의 測量」)

님과 나의 거리가 멀수록 사랑의 양이 많아진다는 화자의 진술은 모순이다. 모순이 진리를 나타내는 수단일 때 이 모순은 역설이 된다. 역설에서 모순은 현상이고 진리는 실재다. 모순 때문에 진리는 더 확연히 효과적으로 환기된다. 여기서 화자의 역설은 '접근'의 본질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가까운 것을 멀리함으로써 그것을 가까이하는데 접근의 본질이 있다. 「하나가 되어 주시요」의 화자처럼 만해의 시적 자아는 님과의 합일을 갈망한다. 님과의 합일로 그의 사랑은 물론 완성된다. 그러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사람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만약 나와 님이 처음부터 하나이면 사랑의 존재의 의미와 이 의미의 형성가능성은 무화된다. 사랑은 반드시 나와 님 '사이'에 있으며 비로소 '나-님'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랑은 나와 님을 정립시켰을 때 이 양자의 관계를 맺게 하는 혼의 형식이다. 님을 내가 아닌 타자로 인식했을 때 이 거리만큼 도리어 나는 님과 일체가 되기를 바라게 된다. '나-님'의 짝말은 들이면서 하나가 되는 모순의 경지다. 따라서 님은 사랑이라는 혼의 형식 속에서 완전한 타자이면서 또한 완전한 자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만해의 시적 자아는 이 거리가 조장될수록 님과의 합일을 더욱 갈망한다. '거리'는 만해의 경우 '이별'이다. 사랑을 위해 이별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며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한다. 님을 재발견하고 사랑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이별이다. 그리하여 만해의 시적 자아는 심지어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예찬하고 무한한 가치까지 부여한다.

눈물의구슬이어 한숨의봄바람이어 사랑의聖殿을莊嚴하는 無等等의寶物이어 / 아 언제나 空間과時間을 눈물로채워서 사랑의世界를 完成할수가요 (「눈물」)

이별이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필수조건이듯이 죽음도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요소로 만하시에 수용된다.⁷⁾

당신은 나의죽음속으로오세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의準備가 언제든지 되어있습니
다／만일 당신을조치오는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죽음의뒤에 서십시오／죽음
은 虛無와萬能이 하나입니다／죽음의 사랑은 無限인同時에 無窮입니다／죽음의압
해는 軍艦과 砲臺가 되실됩니다／죽음의압해는 強者와弱者가 벗어납니다／그러
면 조치오는사람이 당신을 잡을수는 업습니다／오세요 당신은 오실새가되얏습니
다
어서오세요 (「오세요」)

전통시거나 소설시의 화자들은 이별을 체념과 한으로만 수용한다. 그러나 만해시의 화자는 결코 체념하지 않는다. 그는 사랑과 이별을 대립시키지 않고 삶과 죽음을 대립시키지 않는다. 그는 이별과 죽음까지도 사랑과 삶의 완성을 위하여 포괄한다. 그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이다.

이처럼 이별과 죽음의 고통을 선택하고 포괄하는 자세는 곧 만해의 시적 자아가 '총체화된' 자아임을 환기한다.

나의生命의뜻까지를 잇는데로써겨서 花環을만드려 당신의복에걸고 <이것이 님의 님이다>고 소리쳐말하겠습니다 (「참말인가요」)

님은 화자에게 자기생명의 참 '님'이다. 이 님에게 화자는 자아의 전체를 기울며 말을 건넨다. 그의 행위는 「오세요」의 화자처럼 전적인 존재로 된 인간의 행위다. 자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님에게 나아가려한다. 그에겐 李箱詩의 화자와는 달리 분열되고 부분적인 자아상은 찾아 볼 수 없다. 자아의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님에게 가져 간다.

'나-님'의 '나'만 총체화된 자아가 아니다. 님도 총체화된 님이다.

내가 당신을사랑하는것은 까닭이업는것이 아닙니다／다른사람들은 나의紅顏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白髮도 사랑하는 세탑입니다／내가 당신을괴루어하는것은 까닭이업는것이 아님이다／다른사람들은 나의微笑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내가 당신을기다리는데는것은 까닭이업는것이 아님니다／다른사람들은 나의健康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까닭」)

7) 이 점에 대해서 金烈圭, 슬픔과 찬미사의 「이로니」(文學思想, 1973년 1월호) 참조함.

님은 세속의 타인들과 달리 화자의 “紅顏, 微笑, 健康”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白髮, 눈물, 죽임”도 사랑한다. 이렇게 님은 화자의 모든 것을, 화자의 전체를 사랑한다. 님의 사랑은 배타적이지 아니라 포괄적이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님은 전인적 인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화자도 자신의 전체 존재를 기울여서 님을 부르고 「오서요」에서처럼 님에게 최선을 다한다. ‘나-님’의 관계는 전체적 인격의 관계이며 총체화된 나와 님의 관계다.

포괄성은 초월성이며 만해에게 이 초월성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도피나 모든 것의 배타가 아니라 모든 것에 아무런 구애 없이 자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만해시의 중심사상인 禪에 근거한다.

運命의 轉換

선은 자기존재의 본성을 투시하게 하는 기술이며 마음의 본래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본래상태란 만해에 의하면 虛靈湛寂이다.⁸⁾ 곧 맑은 물과 거울처럼 텅비어 있고 맑고 고요한 마음이다. 만해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一切唯心造의 유심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음이 청청하면 국토가 정토이며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는 예토가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본래의 상태대로 텅비고 맑고 고요하면 용납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으며 모든 것은 조화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해는 정신수양인 선이란 “천인격의 범주가 되는 동시에 최고의 취미요 지상의 예술이다.”라고 했다.⁹⁾ 그는 선에 의하여 마음의 본래 상태에 되돌아간 경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산 것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요한 것은 죽은 것이다. 움직이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계 생명을 제가 把持한 것이다. 움직임이 곧 고요함이요, 고요함이 곧 움직임이 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한 것이다. 움직임이 곧 고요함이요, 고요함이 곧 움직임이어서 움직임과 고요함이 하나가 아닌 것은 생사에 자재한 것이다.¹⁰⁾

8) 禪과 人生, 「全集」2권 p. 312.

9) 같은 책, p. 311.

10) 靜中動, 같은 책, p. 350.

생사를 파지하고 생사를 초월하고 생사에 자재하는 것이 마음의 본래상태다.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삶과 죽음, 오는 것과 가는 것이 모든 것에 자재하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초월하는 것이 선의 경지다. 그래서 만해시에서 사랑은 이별을 포괄하고 삶은 죽음을 포괄하고 있다. 이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성취가 가능해지며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완성이 가능해짐을 만해시는 말하고 있다.

이런 선의 사유에서 만해시에는 역설과 함께 ‘운명의 전환’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에 구애되지 않으면 만남은 헤어짐이 되고 헤어짐은 만남이 된다. 그래서 이별의 슬픔과 절망은 만남의 기쁨과 희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리별을 쓸데없는 눈물의源泉을 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깨치는것
인줄 아는까닭에 것잡을수없는 숨음의힘을 옮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리부엌
습니다/우리는 만날때에 썩날것을열너하는것과가티 썩날때에 다시맛날것을 밋습
니다/아아 님은갓지마는 나는 님을보내지 아니하앗습니다 (「님의 沈默」)

이별을 슬픔으로 반응하는 태도는 마음이 흐려진 상태다. 그러나 슬픔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사랑의 파괴라고 깨달은 태도는 마음의 본래상태로 되돌아간 경지다. 이런 경지에서 화자는 슬픔을 희망으로 자신의 운명을 전환시킬 수 있게 되고 그에겐 님의 있음과 없음은 같은 것이 된다.

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만해시의 위대성을 그러나 평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선을 역사화하고 보편화한데 있다.¹¹⁾ 만해에게 선은 불교의 고유명사가 아니다. 누구나 닦을 수 있고 닦아야 하는 정신수양의 대명사다.¹²⁾ 그의 선은 소승의 선이 아니라 대승의 선이다. 그는 『朝鮮佛敎雜新論』에서 반복해서 주장했듯이 불교를 벌유전제비인간의 절간으로부터 우리의 역사적 현실 속으로 끌어 왔다. 그는 불교를 현실과의 적극적 관계 속에서 해석했다. 그의

11) 宋福, 「님의 沈默 全篇解說」(科學社, 1974). 序3. 그리고 金烈奎는 상계논문에서 독일 낭만 철학의 ‘이르니’ 개념으로, 金禹昌은 궁핍한 시대의 詩人(文學思想, 1973년 1월호)에서 ‘비극적 태도’의 개념을 중심으로, 金興奎는 불교의 「중론」과 「유마경」의 불교적 사유를 중심으로 이런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知識產業社, 1978), pp. 347~356 참조.

12) 「全集」 p. 311.

입장은 ‘世間에 들어서 世間에 나는’ 것이었고 궁극으로 그에게 入世間은 出世間이었다. 그는 불교의 진리를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특히 역사적 현실 안에서 구하고자 했다. 만해시에서 사랑이 이별을 포괄하고 삶이 죽음을 포괄했듯이 그의 시적 자아는 식민지 시대라는, 님이 부재하고 님이 침묵하는 역사적 현실 한가운데서 오히려 님을 강열히 의식한다.

나는 갈고심울쌍이 업슴으로 秋收가없습니다/저녁거리가업서서 조나잠자를꾸러이웃집에 갖더니 主人은 <거지는 人格이업다 人格이업는사람은 生命이업다 너들도 아주는것은 罪惡이다>고 말하얏습니다/그말을듯고 도려나올새에 쏘더니눈물속에서 당신을 보앗습니다/나는 집도없고 다른 까닭을결하여 民籍이업습니다/<民籍업는者는 人權이업다 人權이업는너에게 무슨 貞操냐>하고 凌辱하라는將軍이 잇습니다/그를抗拒한뒤에 남에대한激憤이 스스로의숨음으로化하는刹那에 당신을보앗습니다/아아 윈갓 <倫理, 道德, 法律은 칼과黃金을祭祀지내는 烟氣인줄을 아릿습니다/永遠의사랑을 바들스가 人間歷史의첫페이지에 잉크칠을할스가 술을마실스가 망서릴새에 당신을 보앗습니다 (「당신을 보앗습니다」)

이 화자에게는 최소한도의 인간적 삶의 기반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人格”도 없고 “人權”도 없는 존재다. 타인에게 그는 치욕스러운 즉자존재이며 사물화된 존재다. 타인에게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천덕꾸러기다. 그와 타인과는 아무런 인격적 만남이나 실존적 만남이 불가능하다. 그는 이처럼 일체의 인간적 삶의 가능성이 폐쇄된 부정적 현실 속에서 님을 강열하게 의식한다. ‘나-님’의 나와 님 사이에만 진정한 인격적 만남과 실존적 만남의 가능성이 있고 ‘나-님’의 관계만이 유일한 존재범주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온갖 윤리·도덕·법률은 타인들의(일제라고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무력과 물질적 부를 위한 연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들은 언제나 無로 돌아가게 마련인 허위다.¹³⁾ 진리는 ‘나-님’의 관계에만 있다. 화자는 진리를, 그리고 이 진리의 육화인 님을 “눈물”과 “激憤”이라는 아이덴티티의 혼란과 망설임 속에서, 역사적 현실의 부정적 현장 속에서 깨닫는다.

만해시는 깨달음의 證驗을 내용으로 한 證道歌이자 사랑의 證道歌이

13) 상계 「님의 沈默 全篇解說」, p. 170 참조.

다.¹⁴⁾ 만해의 시적 자아가 님의 부재를 통하여 오히려 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죽음의 고통을 수용해서 삶을 완성시키려는 태도등은 이 시적 자아가 자학적일 만큼 ‘의식적’ 자아임을 시사한다. 만해시의 화자는 탐구자이기 이전에 우선 의식적 자아다.

깨여 있음과 깨달음

식민지 시대 한국 현대시는 그 시적 무게의 하나를 고통으로 지탱하고 있다. 만해에도 고통은 의식의 길이다. 고통이 클수록 의식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인간은 가장 긴장의 순간에 총체화된 자아가 된다. 만해의 시적 자아가 자기시대를 님이 부재하고 님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 것 자체가 고통이다. 만해의 시적 자아는 님이 부재한다고 느낄수록, 이별의 고통을 느낄수록 그는 님의 존재를 깨닫고 사랑을 심화시킨다. 그는 고통으로 자신을 항상 깨여 있는 인간으로 채찍질한다.

나는 님을기다리면서 괴로움을먹고 살이됩니다. 어려움을 입고 키가 큼니다(『自由真操』)

만해의 시적 자아에게 이별의 고통은 님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하고 님에 대한 사랑을 심화시켜 주기 때문에 님의 사랑에 처단된 그로서는 「리별」에 서처럼 이별이 가장 큰 고통이면서도 “報恩”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적 고뇌를 다 짐지지 못할 때 일시적 망각의 길을 찾고 의식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사물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만해의 시적 자아에게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으며 그자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귀태여 이즈라면／이즐수가 업는것은 아니지만／잠과죽업뿐이기로／님두고는 못하야요／아아 잊치지안은 생각보다／잊고져하는 그것이 더욱괴롭습니다 (『나는잊고져』)

만약 님을 잊을 수 있다면 이것은 화자에게 “꿈과죽업”이다. 이것은 그가 추구하는 참된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님을 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이별한 님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고

14) 같은 책, 序3.

통보다는 낯을 짓고자 하는 의식이다. 그는 철저하게 의식화된 존재다.

현대문학의 주인공들은 흔히 자아상실이나 통일적 인격체가 파괴된 자아 분열로 그 특징이 기술되고 있지만 만해의 시적 자아는 총체화된 자아로 항상 깨어 있다.

총체화된 자아이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아인 만해의 시적 자아는 이제 진리와 존재의 비밀을 탐구하는 구도자로서 만해시의 주된 문학적 초상을 형성한다.

시인은 가장 성실하게 자신 및 세계와 대면하는 존재다. 여기서 가장 성실하게란 말은 진실의 의미와 함께 가장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시인은 정신적으로 가장 깨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감수성이라고 해도 좋다) 존재세계에 대하여 누구보다 집요한 관심을 가진다. 정신과 언어와 대상의 삼요소는 존재론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¹⁵⁾ 어떤 대상도 인간의 정신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어떤 류의 언어를 통해서 그 존재가 정립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해시의 기본구조인 '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일인칭의 화자이며 '님'은 이인칭의 화자다. 화자가 어떤 대상을 청자인 이인칭으로 삼는 것은 그 대상과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을 환기하고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대상이 반드시 언어로 표현될 수는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대상도 있다.

시어는 두 가지 모순(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나는 시가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부터 해방되려는, 언어를 씌으로써 언어를 쓰지 않는 언어가 되려는 불가능하고 모순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⁶⁾ 시어는 언어이면서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로서의 역할보다 사물 그자체이고자 한다. 그래서 시어는 구체적이고 특수하고 감각적인 성격을 띤다. 또 하나는 시어가 언어이면서 그 고도의 암시성에 의해 일상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15) 윌나이트의 상제서, p. 153. 이하 본문도 여기서 참조했음.

16) 朴秉汶, 「詩와 科學」(一潮閣, 1975), p. 122.

표현한다는 점이다.

선의 최고 경지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不立文字의 경지다. 시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면 시어에 본래적으로 不立文字의 요소가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시는 언어예술이므로 동시에 不離文字의 영역에 속한다. 만해는 언어의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不立文字가 見性成佛의 한 길이라면 不離文字는 性의 圓成因 동시에 度生의 大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존의 三處傳心은 문자를 여윈 것이라고 하지마는 형색이 있으면 곧 문자를 이루느니 格外禪傳도 일종의 문자이며 八萬大藏經은 문자라고 하지마는 未曾說一字로 보아서 四九년 설법도 일찌기 문자를 여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자는 능히 色에서 空을 보고 공에서 색을 볼지니 다시 말하면 禪에서 문자를 보고 문자에서 선을 얻을지니 선을 위하여 글을 쓰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할 것이요, 선을 위한 글을 읽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읽을지니라.¹⁷⁾

不立文字와 不離文字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만해의 언어관이다. 색에서 공을 보고 공에서 색을 보듯이 不立文字가 곧 不離文字라는 것이다. 이런 그의 언어관은 바로 시어의 본질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시와 선은 같은 영역에 놓인다. 시어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마는 이 이미지는 이 특수성과 구체성을 초월한 어떤 피안이나 보편적인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시어는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만해는 선과 시의 유사성을 일찌기 인식했던 것 같다.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은아닙니다/사랑을 이름지을만한 말이나글이 어데있습닛가/……中略……/그립자업는구름을 것처럼 매아리업는絶壁을 것처럼 마음이갈수업는바다를 것처럼 存在? 存在입니다/그나라는 國境이업습니다 壽命은 時間이아닙니다/사랑의存在는 님의눈과 님의마음도 알지못합니다/사랑의秘密은 다만 님의手巾에 繡는 바늘과 님의심으신 뿔나무와 님의잠과 詩人의想像과 그들만이 압니다 (「사랑의存在」)

많하지 않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말하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만 동시에 말 속에서 그리고 말을 통해서 그 말하지 않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어

17) 「全集」 2, pp. 304~305.

다. '나'와 '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나 “詩人の想像”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시어란 말과 침묵으로써 그 전체를 이룬다는 뜻이다. 시어는 不立文字의 영역이면서 不離文字의 영역이다.

시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탐구할 때 시는 종교적이 되고 시의 화자도 탐구자, 곧 신앙적 자아가 된다. 여기서 '나-님'의 '님'은 일상언어나 논리적 언어로 표상될 수 없는 '영원한 너'다. 영원한 너는 신적인 존재다. 만해의 님은 침묵하며 다른 것을 통해 계시를 줄 뿐이다. 침묵하고 계시를 주는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이제 화자는 신이나 적어도 그의 섭리, 종교적 진리를 청자로 삼는다. 사실 인간이 마음 속에 참 '너'를 품고 자신의 은 존재를 기울여 '너'를 부른다면 그는 곧 신을 향해 부드는 행위가 된다.¹⁸⁾

만해의 님은 '숨겨져' 있는 은폐성을 지닌다. 님의 부재(이별)가 여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신비스러운 존재의 비밀로 전환되어 있다. 동시에 님은 언제까지나 숨겨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변장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성도 갖고 있다. 님은 은폐성과 계시성의 양면적 존재다. 님이 없음이 님이 있음이 되듯이 그는 은폐성의 존재이며 계시성의 존재다.

바람도업는공중에 垂直의 波紋을내이며 고요히혀려지는 오동님은 누구의발차치
 임닛가/지리한장마쫓해 서풍에몰녀가는 무서운검은구름의 터진툼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하늘은 누구의얼굴임닛가/쫓도업는 김혼나무에 푸른이끼를거쳐서 옛
 탑위의 고요한하늘을 슬치는 알수업는향기는 누구의입김임닛가/근원은 알지도
 못할곳에서나서 풀뿌리를울니고 가늘게호르는 적은시대는 구비구의 누구의노래임
 님가/편쫓가튼발쫓치로 갖이업는바다불밧고 육가튼손으로 쫓업는하늘을만지면서
 쉼려지는날을 꺾게단장하는 저녁늘은 누구의詩임닛가/타고남은재가 다시기름이될
 니다 그칠줄을모르고타는 나의가슴은 누구의밤을지키는 약한등불임닛가 (『알수
 업서요』)

‘침묵’(『님의 沈默』에서처럼)과 ‘밤’은 님의 정체다.¹⁹⁾ 님은 직접 자신을

18) 부버의 상계서 p. 101.

19) 물론 『알수업서요』에서 님을 회기하는 '누구'는 잃어버린 조국으로 보아 식민지 시대는 밤의 시대이며 침묵하는 시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드러내지 않는다. 님의 정체는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 들의 다른 '존재자들'(시적 용법으로는 이미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시될 뿐이다. 이 존재자들은 결코 님 자체가 아니라 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동료로서의 '다른 것'이다.

님은 바람도 없는데 떨어지는 오동잎과 꽃도 없는 길은 나무의 알 수 없는 향기와 근원도 모를 시내를 통해 계시되기 때문에 신비롭고 또 저녁놀로 계시되기 때문에 아름답다.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은 님의 속성이다. 이런 님은 상징으로 밖에는 표상될 수 없다. 상징은 不離文字이며 不離文字의 반투명성이다. 님은 완전히는 풀 수 없는 양면성의 존재이기에 화자에게 끊임없는 구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이런 님앞에서 화자도 자신을 '약한 동물'임을 깨닫는다.

신앙의 영적 체험은 일상언어로 잘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종교의 언어는 역설과 비유의 시적 장치를 원용한다. 만해시도 사랑의 시이면서 동시에 종교시다. 만해시는 많은 역설과 비유를 통해 독특한 신앙적 자아를 낳았다. 만해는 우리 현대시사에서 뚜렷한 하나의 맥으로서 종교시의 전통을 세워 놓았다.

Ⅲ.

지금까지 살펴 본것처럼 '나-님'의 관계가 만해시의 기본구조였다. 만해의 시적 자아는 이 관계의 의미망 속에서 공시적 동일성과 통시적 동일성의 자아와 우리 현대시사에서 매우 드문 총체화된 자아와 항상 깨여 있고 깨닫는 신앙적 자아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의 시적 자아는 사상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는 완전한 세계를 동경하고 찬미하기보다(그의 님은 결코 탁월한 능력을 지녔거나 초월적 존재만은 아니다. 오히려 의심 많고, 한눈 팔며, 무력한 존재로도 많이 나타난다) 이 완전한 세계에 이르는 과정 그자체,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계에서의 많은 갈등을 노래하고 이 갈등은 사상적 깊이에다 사상적 폭도 확대시켰다.

그는 인간의 모순과 약점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다원적 가치의 체계로 지양시켰다. 있음과 없음,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 出世間과 入世間, 不立文字와 不離文字를 대립시키지 않는 그의 포괄성은 부분적 자아가 허위적 자아로 살 수밖에 없는 현대에 귀중한 전체적 인간상, 곧 총체화된 인간상을 낳았다. 이 인간상은 특히 식민지 시대에 어떤 도덕적 고결성의 인간보다 가치가 있으며 미적으로도 향유될 수 있는 것이다.